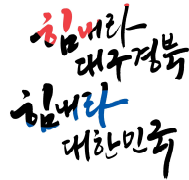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		보도 설명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4. 7.(화) 총 1매(본문1)	
담당 부서	토지정책과	담 당 자	·과장 남영우, 사무관 고경표, 주무관 김재현 ·☎ (044) 201-3402, 3407	
	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	담 당 자	·과장 정승현, 사무관 나정재, 주무관 손기열 ·☎ (044) 201-3590, 3592	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실거래 조사를 위한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, 정상 운영 중입니다.

【 관련 보도내용 (4.6. 한국경제TV) 】

☐ 부동산 상시 조사한다더니... 설익은 발표 논란

- 정부가 '12.16 부동산 대책' 후속으로 2월부터 부동산 거래를 상시 조사하기로 발표했으나,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

☐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제도 도입 시점인 '06년 1월부터 “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(RTMS)”을 통해 실거래 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,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거래 정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·이상거래를 추출·조사하고 있습니다.

☐ 한편, 보도에서 언급된 '시스템'은 실거래 신고내용의 조사업무를 새로이 위탁받아 수행('20.2~)하는 한국감정원이 조사 담당자의 배정, 기록물의 전자적 보관 등 실거래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과는 별도로 자체 개발 중인 업무보조시스템임을 알려드립니다.

- 현재 진행 중인 3차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, 집값 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 모두 위 시스템 구축과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고경표 사무관(☎ 044-201-340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